

(재)달서문화재단 소식지

vol. **10**

**달서** 문화만개  
DALSEO





## 달서의 밤, 물들다

깊어가는 가을  
관객들은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듭니다.  
귀 기울이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동안  
달서의 밤도 어느새  
가장 황홀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일상의 치열함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희망달서큰잔치.  
예술이 꽃핀 달서의 가을은  
풍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Hope festival  
for our daily lives*







초대가수 마야

Heart youth and hope

## #1 낭만 가득, 가을밤의 음악회

가을을 두드리는 낭만 가득한 '가을밤의 음악회'가 희망달서큰잔치의 시작을 알렸다. 첫 무대는 지역을 대표하는 '애플재즈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애플재즈오케스트라는 라틴, 보사노바, 핑크 등 가을 밤과 어울리는 재즈 음악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허각의 파워풀한 공연 또한 현장을 함성으로 가득 채웠다.

## #2 청춘을 즐겨라! 청춘난장콘서트

토요일 밤에는 청춘들을 위한 '청춘난장콘서트'가 열렸다. 록과 발라드를 아우르는 마야, 댄스 가수 박남정, 트롯 가수 지원이, 퍼포먼스 걸그룹 블랙바니 등 인기가수들이 연이어 등장했고, 메인 무대 앞 객석을 꽉 채운 관객들은 출연자들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90분 간 펼쳐졌던 청춘난장콘서트는 2019 희망달서큰잔치에 흥겨움을 더하며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 #3 온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드는 체험 마당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신나는 발명 체험 한마당'은 과학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창의 발명 체험 부스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명 퀴즈 왕 선발 대회'를 마련해,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칼라 한지 그리기, 동물탈 가면 꾸미기, 나무 오카리나 만들기, 생크림 데코아트 등의 미술 체험 프로그램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프리마켓, 먹거리 마당, LED 네온아트 포토존이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마술쇼·버블쇼 등의 다채로운 거리 공연도 펼쳐져 잔디밭 곳곳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 #4 다같이 만들어가는 달서다문화축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제11회 달서다문화축제'가 개최되어 희망달서큰잔치에 의미를 더했다. 축제에 참가한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세계 문화·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EXPO, 다사랑페스티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함께 즐기고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 CONTENTS



(재)달서문화재단 소식지인 '문화만개'는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그 문화의 향기로 '어질고 선한 세상'을 이뤄가는 따뜻한 움직임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만개'의 자음을 도형적 요소로 구성하고, 'ㅎ'을 문화의 꽃이 활짝 피는 확장된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를 전하는 '문화만개' 매거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통해 독자들에게 한결음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 합니다.

발행인 : 이태훈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발행처 : (재)달서문화재단  
대구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2F  
발행일 : 2019년 12월 5일  
기획 :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편집위원 : 이미화, 정정남, 김상아, 남도연  
정지연, 허정무, 박영빈, 김민경  
디자인/제작 : 동아에드(주)  
2019년 VOL.10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만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 Intro

- 02 Prologue  
2019 희망달서큰잔치  
: 달서의 밤, 물들다

## Art & Culture

- 기획특집 \_ 일상예술,  
단조로운 삶 속의 작은 변주

- 10 우리 일상 속에서의 사진  
대구사진작가협회 회장 김영록
- 16 한눈에 살펴보는 클래식 음악의 역사  
음악프로듀서/피아니스트 권순환
- 24 문화예술, 시니어를 젊게 한다  
매일신문 '시니어매일' 편집장 홍현득
- 32 예술과 의학의 융합이 필요하다  
대구광역시 의사회장 이성구

## Interview

- 38 인류, 자아, 탄생, 그리고 빛  
이이남 초대전 <다시 태어나는 빛>
- 44 너와 나의 자유로운 대화, 재즈 Jazz  
재즈파크 빅밴드 with JK김동욱, 웅산

## Life & Culture

- 52 달서기행  
달빛과 호수의 낭만, 월광수변공원
- 58 일상@예술 : 예술아카데미  
<2019 청춘수필집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글 쓰며 만나는 진정한 나  
<2019 드로잉프로젝트 '동네 여행'>  
그림 그리며 떠나는 일상에서의 동네 여행
- 66 Live on  
대구 타악연주 <두드림달서클럽>  
Do dream! 타악의 매력 속으로
- 70 Highlight  
<전시 리뷰>  
'인형의 꿈'—공병훈, 한승훈展  
<공연 리뷰>  
2019 재즈인대구 페스티벌  
<이슈>  
웃음이 가득한 또 다른 내 집 달서가족문화센터  
<인프라>  
나의 꿈, 나의 행복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획특집  
일상예술, 단조로운 삶 속의 작은 변주  
'우리 일상 속에서의 사진'  
대구사진작가협회 회장 김영록

기획특집  
일상예술, 단조로운 삶 속의 작은 변주  
'한눈에 살펴보는 클래식 음악의 역사'  
음악프로듀서/피아니스트 권순훤

기획특집  
일상예술, 단조로운 삶 속의 작은 변주  
'문화예술, 시니어를 젊게 한다'  
매일신문 '시니어매일' 편집장 홍현득

기획특집  
일상예술, 단조로운 삶 속의 작은 변주  
'예술과 의학의 융합이 필요하다'  
대구광역시 의사회장 이성구

Interview  
'인류, 자아, 탄생, 그리고 빛'  
이이남 초대전 <다시 태어나는 빛>

Interview  
'너와 나의 자유로운 대화, 재즈 Jazz'  
재즈파크 빅밴드 with JK김동욱, 웅산

# Art & Culture



예술은 이미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일상예술, 단조로운 삶 속의 작은 변주'라는 주제 아래 사진, 음악, 의학, 시니어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일상과 예술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또, (재)달서문화재단에서 기획한 전시, 공연의 주인공인 이이남 작가와 JK김동욱, 웅산 씨를 만나 그들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 우리 일상 속에서의 사진

*Capture everyday life*

글 · 사진 대구사진작가협회 회장 김영록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다양한 현상들과 마주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네모난 프레임 속의 사진이라는 매개체이다.  
아침에 신문을 펼치면 굵은 헤드라인 글씨보다 1면 대표 사진이 먼저 시선을 모으고,  
출근길에 거리를 나서면 일회용 전단지에서부터 지하철, 버스 광고까지  
언제 어디서나 공기처럼 사진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진① 세계 최초의 사진 1827년  
(조제프 니세포르 니에프스)  
사진② 임응식(1912-2001)작, 1950년 서울  
사진③ 정범태(1928-2019)작, 1956년 남대문  
사진④,⑤ 최민식(1928-2013)작, 1960 부산  
사진⑥ 6·10 민주항쟁 하루 전, 1987년 6월 9일

사진의 발명은 생각보다 그리 역사가 길지 않다. 최초의 사진은 1827년 조제프 니세포르 니에프스에 의해 촬영되었으며, 1839년 프랑스에서 사진술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우리 곁에 왔다. (사진①)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너무나 급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해왔다. 초창기 사진은 대부분 초상사진이었으며, 그 이후 풍경, 보도, 광고 등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진②,③)

이렇듯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진들은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고 사회의 자화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의 삶을 조명해보며 한 장의 사진을 통해 마음이 파스해짐을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사진의 역할이다. (사진④,⑤)

몇십 권의 책과 글귀보다 사진 한 장이 더 강하게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현대인들은 미디어의 긴 글에 큰 관심이 없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한 컷의 사진만으로도 사회 이슈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한 컷의 사진이 있다. 그 사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미치는 파장은 매우 다를 것이다.

이한열 군이 최루탄 파편을 맞고 쓰러지는 사진을 마주해보자.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투쟁이 프레임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쉰다. 이 한 장의 사진이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사진⑥)

2015년 9월에는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논란이 뜨거웠다. 파도에 쓸려온 아이는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이다. 아이는 이날 가족과 함께 터키 해안을 떠나 유럽으로 가려고 했지만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탈출하려는 시리아 난민들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사진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었다.

중군기자 케빈 카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 그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남긴 한 장의 사진은 대부분 기억하기 때문이다. 케빈 카터는 이 사진으로 풀리처상을 받았고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케빈 카터는 전 세계적인 사진가로 이름을 남겼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면 사진기를 당장 내려놓고 소녀를 구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는 비난을 견디지 못한 케빈 카터는 이 유명한 사진을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 진실은 독수리는 소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케빈 카터는 독수리를 쫓아 버린 후 소녀를 구출했다고 한다.

이렇듯 사진은 그 앞뒤의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시리아 난민 문제



케빈 카터(1960-1994)작, 1993년 수단





같은 장면을 가지고도 사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맨 중앙 사진이 원본이지만 이 사진을 좌, 우측 사진처럼 한 컷씩 잘라서 사용한다면 사진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듯 전달자의 주관적 시선에 따라 사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진은 피사체와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풍경과 시대상이다. 사진을 두고 흔히 절대적이라고 말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진을 이용하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 곧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과 실제라 말하는 것도 결국 현재 및 시간에 대한 인식 때문이 아닐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사진이라는 매개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공기처럼 따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의 연속에서 옳고 그름, 필요와 불필요는 우리 모두의 생각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다. 은행잎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계절에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는 일이야말로 사진의 가장 큰 기능이 아닐까 싶다.

김영록

대구사진작가협회 회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대구포토펙페스티벌 운영위원장,  
대구사진비엔날레 육성위원,  
대구사진대전 초대작가





# 한눈에 살펴보는 클래식 음악의 역사

*The beauty of classical music*

글 음악프로듀서/피아니스트 권순훤  
사진 동아에드(주)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지면으로 인사드리는 권순훤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이야기를 쉽고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다양한 예술 분야 중 흔히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감상되고 모범이 될 만한 예술 작품'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랫동안'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쉽게 풀어나가 볼까요?

우선 클래식이 클래식인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전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즐겨 듣던 가요의 제목도 다 생각나지 않지만, 클래식은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클래식은 길게는 500년 이상, 짧게는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말이죠. 그런 작품들을 학교에서 배우고 생활 속에서 듣고 있으니 그 가치와 생명력이 인정된 것이지요. 클래식 음악은 시기적으로 다섯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별 특징을 알아볼까요?







사진①



사진②

사진① 피아노의 전신 클라비코드  
사진② 모차르트·하이든·베토벤의 그림

## 중세 시대 이후 1500년대의 르네상스 음악

음악사에서 이 시기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여러 성부가 복잡하게 나뉘지 않고(쉽게 말해 화음이 많지 않고), 악기도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이 시기 음악은 종교 기관의 미사 예식 때 연주되는 성악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가 대표적입니다.

잡고 가볼 작곡가로는 그레고리오 알레그리(Gregorio Allegri 1582~1652)를 들 수 있는데요, 그의 작품 ‘미제레레 메이(Miserere mei,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금요일 저녁 미사 때 연주되는 곡으로, 이 곡의 악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음악이 다른 곳에서 연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 악보를 유출한 자는 파문에 처한다”는 엄중한 경고 문구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악보가 공개되기 전 14살 소년 모차르트가 바티칸을 여행하던 중 이 곡을 듣고 완벽하게 암보해서 악보로 옮겨버립니다. 악보가 널리 퍼져버린 계기가 되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교황 클레멘트 14세는 모차르트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신기에 가까운 재능에 감탄하며 가톨릭을 널리 알린 사람에게 수여하는 ‘황금박차훈장’을 내렸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 악보

## 바로크 시대

바흐와 헨델과 비발디가 성장해서 활약하던 17세기를 바로크 시대라고 통칭합니다. 이때는 과거의 종교음악 중심의 시대에서 벗어나 다양한 악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통용되는 4개의 현을 지닌 바이올린도 이때부터 일반화되었고, 피아노의 전신인 클라비코드와 쳄발로 등의 악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접하고 음악을 향유하기 시작한 시대인 만큼 이때부터 세속음악(종교음악이 아닌 말 그대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발전하기 시작하지요. 성부가 다양하게 작곡되기 시작하는 시대라서 ‘다성음악’의 시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흐와 헨델은 수많은 관현악 작품들을 남겼고,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던 비발디는 ‘사계’라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시초와도 같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 고전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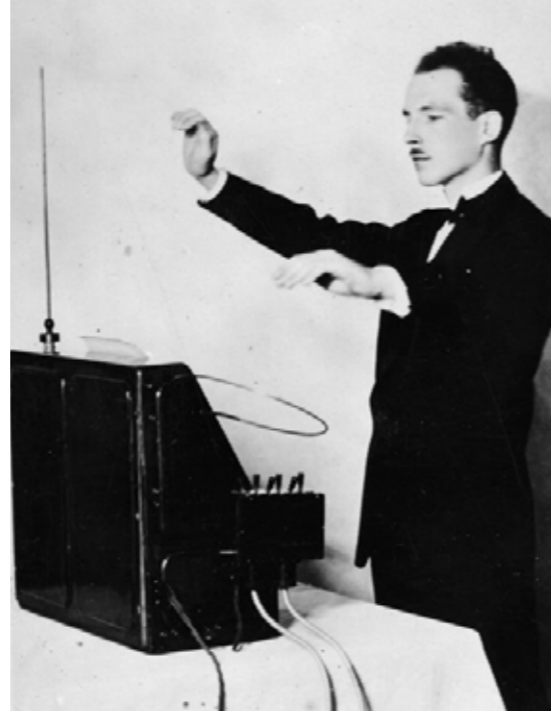
흔히 말하는 클래식이라 불리는 시대로 하이든과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활동한 시대입니다. 르네상스의 단성음악, 바로크의 다성음악을 거쳐 이때는 여러 음이 어우러지면서 음악이 진행되는 의미로 ‘화성음악’의 시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음악의 형식이 완성되었고 이때부터 음악가들 사이에서 후원자나 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립하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그중 모차르트는 뛰어난 음악으로 자립을 시도한 첫 번째 음악가였고, 실제로 후원 없이 음악 활동만으로 큰 수입을 올렸지만 수입을 훨씬 상회하는(?) 지출로 인해 고생을 했습니다. 반면 베토벤은 가계 부를 쓸 정도로 금전 관리가 철저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음악가 최초로 당대의 귀족들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 베토벤은 최초의 성공한 프리랜서 음악가로 기록될 수 있겠지요?

고전파 3대 작곡가인 하이든과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작품들은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가득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하철 안내 음악,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음악, 하다못해 쓰레기차가 후진할 때 나오는 음악까지 어지간히 익숙한 음악들은 이 시대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리스트의 음악회 그림



최초의 악기인 테레민

## 낭만주의 시대

21세기인 지금도 가장 많이 연주되고 감상되고 소비되는 음악은 바로 이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입니다. 19세기 전반에 걸쳐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악기들 역시 더이상 발전할 수 없는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현대의 피아노,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들이 이 시기에 개량이 끝납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 또한 높아지면서 다양한 계층에서 음악을 향유하다보니 비약적으로 수준이 향상되고, 소위 말해 ‘비르투오소’라고 불리는 악기의 명인들이 출현합니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객석을 휘어잡던 ‘니콜로 파가니니’, 엄청난 피아노 연주로 전 유럽의 공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던 슈퍼스타 ‘프란츠 리스트’, 서정적인 피아노곡으로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프레데릭 쇼팽’ 등은 이름만 들어도 여러 명곡이 떠오르는 유명한 거장들입니다. 이전 시대의 작곡가들이 전업 작곡가였던 것에 비해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들은 연주자로도 엄청난 입지를 굳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무대를 꽉 채우는 티켓 파워를 볼

때 요즘 아이들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특히 리스트는 그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귀부인들은 그의 연주를 보려고 옆 나라에서 마차를 타고 왔고, 그가 연주하다가 끊어트린 피아노줄은 가공되어 장신구로 팔려나갔으며(요즘 아이돌 가수들의 ‘굿즈’와 같은 개념이지요?) 그가 피우다 내려놓은 시가는 한 귀부인의 보석함에 보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클래식 공연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음악이 바로 낭만주의 시대에 작곡된 음악입니다. 수많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지만 이 시대의 곡들을 가장 많이 선곡하게 되는 까닭은 청중들이 가장 즐겁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쇼팽의 왈츠,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브람스의 헝가리무곡 등 곡명만 들어도 멜로디가 떠오르는 음악들이 다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이랍니다. 서정적인 멜로디, 아름다운 화성, 신나는 리듬 등 현대인들이 좋아할 모든 것들이 악기로 표현된 시대지요.

## 현대 시대

1900년대 초 · 중반을 보통 현대 시대로 구분하는데요, 사실 낭만주의 시대에 클래식 음악이 더 발전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성되어 버렸기에, 현대 시대에는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놀드 쇤베르크는 인위적으로 창조인지 단조인지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새로운 조성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무조음악으로 현실화되는데요, 이 음악은 정말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만 이미 조성음악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난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인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스트라빈스키는 발레곡 ‘봄의 제전’에서 야수적인 리듬을 사용하여 당대의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혁신적인 음악은 금방 대중의 공감을 얻었고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존 케이지는 ‘4분 33초’라는 피아노곡을 발표했는데요. 연주 당일 피아니스트는 무대에 등장하여 4분 33초 동안 악보만 노려보다가 퇴장했습니다. 존 케이지는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는 소음이나 악보를 넘기는 소리 등 모든 것이 음악이다.”**

이는 음악에 대한 도전으로 불리며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세기에는 러시아의 음향학자이자 첼리스트였던 레온 테레민에 의해서 전기를 이용한 최초의 악기인 테레민이 등장하고, 이후에 전기를 이용한 플러그드 음악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음악의 범위는 엄청나게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클래식 음악은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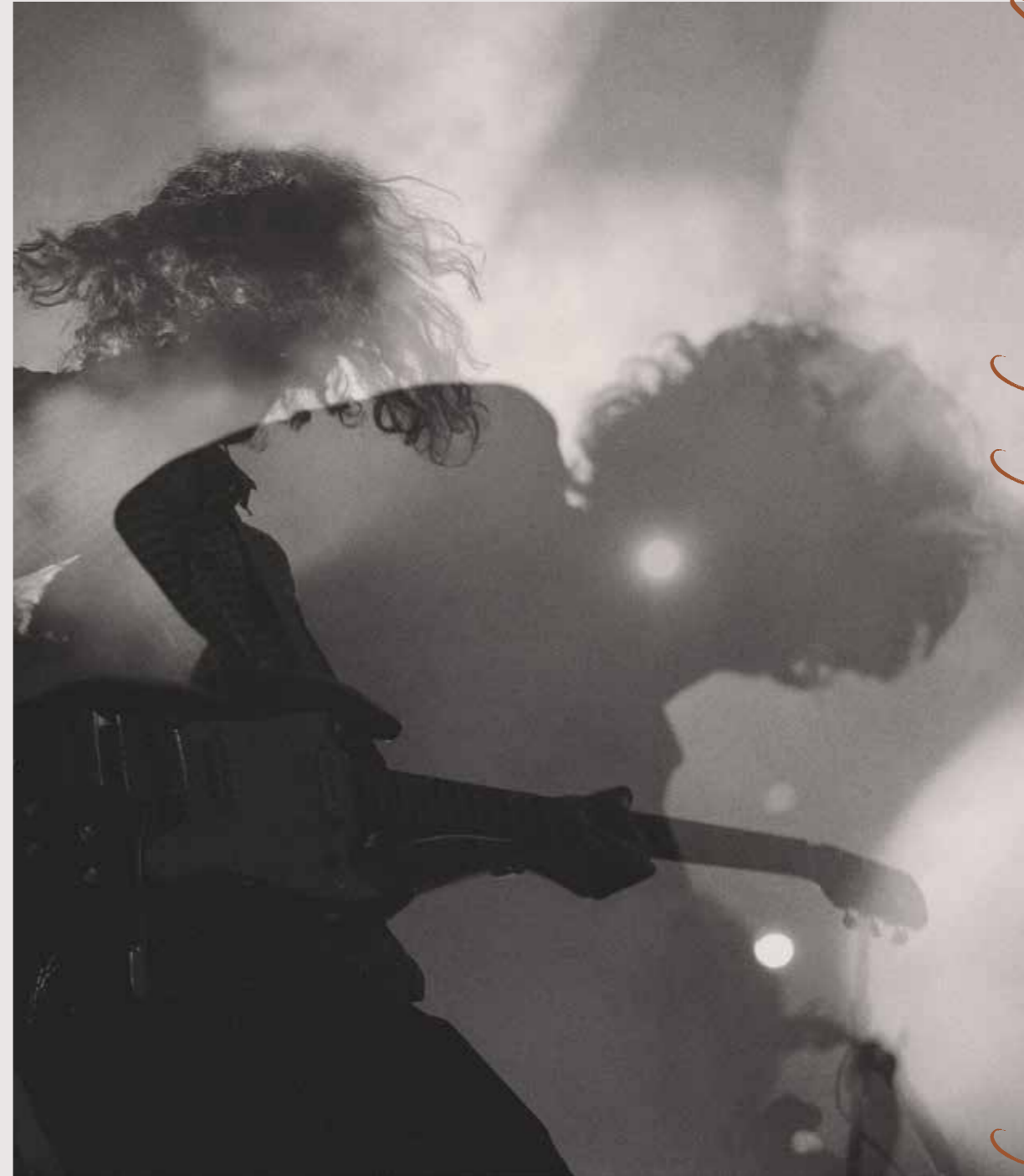
“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듣는 다양한 음악들도  
언젠가는 클래식이 되겠지요? ”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100년 뒤에는 지금이 한 세기 전 과거일 것이고,  
지금 가장 많이 소비되고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이  
클래식의 반열에 오르겠지요? 이미 1900년대 탱고의 왕으로 군림했던  
카를로스 가르델의 탱고 음악은 클래식 곡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고,  
30년 전만 해도 전무했던 실용음악 전공이 요즘에는  
기존의 음악 전공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사람들이 요한 슈트라우스의 ‘천둥과 번개’ 폴카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었다면  
지금은 EDM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는 세대로 변했습니다. 지휘자가 지휘하던 관현악곡을  
지금은 다양한 음악이 대신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음악은 시대에 따라 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앞서 말한 르네상스에서부터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섯 시대 중 어느 시대의 음악을 들어도  
그 속에 당시의 시대상이 녹아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한 세기 뒤에는 우리나라 스타들의 음악이  
지구 반대편 학생들이 공부하는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기를 바랍니다.

권순환  
신한대학교 겸임 조교수,  
세종대 강사, 네오뮤지카 대표



*When the language is over, the music begins*



# 문화예술, 시니어를 젊게 한다

*The energy of culture*

글 매일신문 '시니어매일' 편집장 홍현득  
사진 동아에드(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비슷한 말도 있다.

**“인간아, 밥만 먹고 사나.”**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이야 당연히 정신의, 영혼의 고양(高揚)이 없이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인간아, 밥만 먹고 사나’ 또한 식욕 외에 충족되어야만 하는 다른 욕망이 있다는 말일 테다. 두 말의 격(格)이나 결이야 하늘과 땅 차 이겠지만, 의미의 공약수는 있다.

밥 또는 빵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원천이다. 이것이 없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방법은 없다. 이런 음식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보면 물질적인 재화 전반을 가리키

는 용어도 될 수 있다.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따뜻하게 입어 우리 몸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주는 의복일 수도 있다. 편안하게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안락한 집이라는 의미도 된다. 이것들은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이기에,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한다.

육체적 결핍을 면하기 위해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사냥을 하고,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한다. 열심히 일을 해 좋은 옷을 사 입고, 비싼 집에서 살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인간다운 삶의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 만족만이 아닌 정신적 만족감을 갈구한다. 정신적 만족감까지 충족되어야만 인간은 진정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빵만으로,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문화는 우리 정신을 위한 에너지

정신적인 만족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자의 말씀에 따라 살며 영혼의 정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신앙이 정신적 만족감을 상승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종교와 비슷하게 인간에게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것이 바로 문화생활이다. 인류의 유구한 역사를 거슬러 보면 의식주가 충족된 사회에서는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다.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문화생활에 눈을 돌리게 된다. 앞마당에 정원을 꾸며 아름다운 꽃을 심고 나무를 키우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 한 다육식물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양종맛은 식물들이 수백 수천 개의 조그마한 화분에 담겨 자라고 있었다. 농장의 주인은 20대 후반의 청년 농부였다. 그가 소개하는 화분들의 가격 얘기를 듣고 모두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청년은 자신이 키운 다육이를 1천만 원까지 받고 팔아봤다고 했다. 손바닥보다

작은 화분에 심긴 식물 하나가 1천만 원이라니. 누가 이런 식물들을 사가는 것일까. 1천만 원이라면 밥이 몇 그릇이며, 빵을 얼마나 살 수 있는 돈인가. 그럼에도 그런 가치를 작은 화분 하나와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여기에 비롯된다.

인간은 정신과 영혼의 에너지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려 한다. 공연장에도 가고 전시장에도 가려 한다. 인간은 그렇게 문화예술을 창조해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들 한다. 문화와 예술이 한 나라를 융성시키고, 한 도시를 부활시키기도 한다. 문화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도 가져다준다. K-팝과 게임 한류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문화 시장

그런 문화라는 시장에서 시니어 세대의 파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돈부자, 시간 부자로서 오늘날 문화 소비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시니어 세대는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시니어 세대는 우리나라 인구의 다수를 점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 집단이 되고 있다.

시니어 세대는 50+ 세대이다. 50+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약 2천만 명, 대구경북에서 200여만 명을 차지(2019년 1월 현재)하는 거대 인구 집단이다. 전체 인구의 40% 가량이 다. 집단의 영향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다.

50+ 세대 중에서도 핵심은 베이비 붐 세대이다. 전후 세대인 베이비 붐 세대는 1955~1963년생들로서 우리나라 고도 경제 성장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유소년 기에는 미국의 원조 물자를 배급받으며 힘들게 살았지만, 청년기에 들어섰을 때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취업 걱정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풍요로운 삶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이뤄낸 세대로서 정치, 경제의 주역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이다. 베이비 붐 세대를 포함한 오늘날의 시니어들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세대이다. 수만~수십만 원에 달하는 관람료를 지불하며 오페라나 뮤지컬, 연극, 콘서트를 구경하러 갈 수 있는 세대이다. 자식들이 장성해 떠나고 부부만 남은 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히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있다.

문화 공급자들이 이들을 주목하는 것도 당연하다.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한 문화예술계의 구애는 이미 오래 전부터였다. 해외 유명 연주팀의 내한 공연 흥행도 이들의 유인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한다. 주머니가 가벼운 20대나 직장생활에 늘 바쁜 30~40대에 비해 시니어들은 경제력과 시간 면에서 여유롭게 문화적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 문화생활 즐기는 시니어들

**#1.** 60대 초반의 H씨는 주말이면 부인과 함께 미술관 나들이를 나간다. 대구시립미술관이 나 대구문화예술회관 같은 큰 전시장을 찾아 한두 시간 작품 감상을 하고, 외식을 겸한 나들이를 하는 게 큰 즐거움이다. 대부분의 전시가 무료이거나, 입장료가 있더라도 1천~2천 원 수준으로 부담이 되지 않아 더욱 좋다. 요즘은 미술 전시회뿐만 아니라 공연장도 찾는다. 꼭 보고 싶은 공연이 있으면 다른 도시로 '원정'도 마다하지 않는다. 부인과 함께 여행을 겸한 나들이에 나선다. 은퇴 후 연금생활을 하는 그는 부인과 문화생활을 즐기며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스스로를 '공연화백', 즉 '공무원연금으로 생활하는 화려한 백수'라 부르며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려 한다. 두 달에 한 번은 국내 여행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외여행을 부부 동반으로 가려고 노력한다. 그런 생활의 중심에 문화와 예술이 있다.



노인복지관 서예실에서 어르신들이 글씨 연습을 하고 있다.



**#2.** 젊은 시절 교편을 잡았던 70대 초반의 J씨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지금도 여전히 하루해가 짧다. 바쁘긴 하지만 타의에 의한 스케줄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만든 일들이기 때문에 만족스럽다. 교단을 떠난 그는 다시 학생이 되었다. 항상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즐겁기만 하다. 영어를 가르치던 J씨는 이제 도예를 공부하는 미술 학도이다. 흙을 만지며 인생 2막의 즐거움을 새롭게 느끼고 있다. 몇 차례 전시회도 가졌고, 자신의 작품을 기증하기도 한다.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교류전에도 여러 번 참여했다. 창작 활동을 하면서 노후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대학 문예창작과에 진학해 글쓰기 공부도 하고 있다. 70대의 나이지만 자신이 늙었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3.** 70대 중반 P씨의 일과는 노인복지관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남편과 사별하고 식당 등 사업으로 돈을 모으기도 했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쓴다. 수필을 공부하고 가요 교실에서 노래를 한다.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웬만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섭렵했을 정도이다. 복지관 기자로 활동하며 행사를 취재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다. P씨는 10여 년 경력의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취미로 시작한 사진은 어느새 작가의 반열에 오를 정도의 실력이 되었다. 여러 차례 공모전에서 입상도 했다. 지난 가을에는 해외 출사 여행에서 만든 작품들을 모아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해 조촐한 전시회도 열었다. 작품을 판 수익금은 통 크게 복지관에 기부금으로 냈다. 수필과, 노래, 사진, 영상 등과 함께 하는 그의 삶은 지루할 틈이 없다.





카메라를 만지며 즐거워하는 어르신 모습.

은퇴 후에도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 몇 분의 사례를 들어봤다. 이들에게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약해졌지만, ‘노인’은 아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액티브 시니어들의 정신은 청년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공부하고, 문화예술의 생산자가 되어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만큼 시니어들의 삶에서 문화는 중요하다. 시니어들의 문화생활은 삶의 질뿐만 아니라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들은 자칫 정신적 공허함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시기에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정신 건강을 지켜 주는 필수 요소이다.

지난해 영국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영화나 연극을 보는 등 문화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니어들의 우울증 위험이 낮아진다고 한다. 2~4개월에 한 번 영화, 연극, 미술 전시회를 본 노인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2% 낮았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화, 연극 등을 본 노인들은 그 위험이 48%나 낮았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니어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을 즐기는 50대가 2016년 75.2%에서 2018년엔 79.4%로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선 상승폭이 더욱 두드러진다.

2016년 대비 60대는 9.0% 포인트, 70세 이상은 7.5% 포인트 각각 증가하여 60대 64.7%, 70세 이상 46.9%로 나타났다. 시니어들은 문화생활을 체험함으로써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답한다.

##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 공간

시니어들의 문화생활은 주로 노인복지관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련해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대구 시내 8개 구군에 17개에 달하는 노인복지관이 있다. 복지관에서는 시니어들의 건강, 정보화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악, 민요, 서예, 춤, 노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액티브 시니어를 자처하는 고령자들은 하루의 상당 부분을 복지관에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관 외에 평생학습 실버대학도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구에는 담수대학, 운경대학, 신한국인성대학원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실버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실버대학에서는 시니어들을 겨냥한 수준 높은 교양 강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도 펼쳐지고 있다. 다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약간은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어르신들만이 참여할 수 있어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로당도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경험의 장(場)으로 빼놓을 수 없다.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설립되어 있는 경로당은 예전 같 곳 없는 노인들의 사랑방이었다. 이곳에서 노인들은 하루 종일 화투장이나 만지거나 잡담으로 소일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과였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오늘날의 경로당 모습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강사나 지도자들이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여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도 시니어들의 문화 공간이다. 대구 시내 구군마다 자리 잡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강좌이긴 하지만, 당연히 시간이 여유로운 시니어 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도서관의 강좌를 중심으로 시니어 회원들의 모임도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 공간 마련에는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보다 대도시들이 앞서간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특화된 공간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방 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따라가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 경제적, 지역적 문화 격차가 문제

정부가 지자체에서 고령사회 도래의 대비책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니어 세대에서는 특히 경제적 수준에 따라 문화생활의 격차가 심하다. 지역적인 차별도 적지 않다. 시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시내의 극장이나 공연장, 노인복지관, 도서관을 찾을 수 없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시니어들이 농어촌 마을에서는 적지 않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문화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자의 경우 생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생활이란 언급생심이다. 문화 배우처, 문화 순회 활동, 문화예술 교육 등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문화 활동이 적지 않음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들은 주로 공원이나 집 안에서 하루 종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 지자체 조사 결과 노인복지관 등 문화 시설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고령자가 16%에 지나지 않았다는 보도도 본 기억이 난다.

나머지 80% 넘는 고령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가를 보내는 걸까. 공원이나 야산 등 야외에 나가 본 시민들은 금세 알 수가 있다. 양지바른 공원 한 구석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해가 저물고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고령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호도라디오 하나 들고 옛날 가요를 틀어 놓고 무료하게 앉아서 시간을 죽이는 모습도 많이 보았으리라.

대구 두류공원 성당못 주변은 이런 노인들의 집합처 중 한 곳이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노인들로 공원이 가득하다. 으스스한 공간 속으로 찾아 들어가면 대여섯 명씩 모여 앉아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서 문화생활을 운운하기는 곤란하다.

고령자들의 여가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고 있는 배소일 시니어매일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자.

“대구 도심 한 공원 주변에는 ‘어르신 전용 무도장’ 20여 곳이 성업하고 있다. 단돈 1천 원(테반은 무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노인들끼리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반려자가 먼저 떠나고 집에 있어 봐야 젊은 사람들 눈치나 보게 되는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별다른 할 일이 없으니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 부근 골목에서 국수 한 그릇을 사먹거나, 친구와 막걸리 한 잔을 나누고 해





도심 공원에서 무료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질책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간다. 그 주변 어딘가에는 어르신 전용 ‘하우스’도 있다. 말하자면 도박장이다. 입장료 2천 원을 내면 몇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몇 천 원을 걸고 판을 벌인다. 하루 종일 놀아봐야 따는 돈도 몇 천 원이고 잃는 돈도 몇 천 원이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바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상 과제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말한다. “이 정도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이다.”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 지역적 격차에 따른 문화 차별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노년층의 여가 생활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60세 이상 시니어의 상당수는 여가 시간을 TV시청 등으로 보내며, 단순히 휴식하고 낮잠을 자거나 가사 일을 한다고 한다. 문화예술 관람 등 활동적이고 참여 중심의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 턱없이 부족한 문화예술 활동 공간

노년층의 문화 여가 생활이 제한되는 가장 큰 요인은 이들이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노인복지관이나 도서관 정도인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도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다. 사람과 교체하는 데도 돈이 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다. 소득 격차에 따른 문화 향유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개방된 문화 공간, 소통 공간이 더욱 많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구 중구 포정동의 그레이스실버영화관은 대구 유일의 실버 세대 전문 극장이다. 5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2천 원의 입장료만

으로 추억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심지어 55세 이상을 동반하기만 하면 모두 2천 원씩만 내면 된다. 시니어들을 위한 이런 극장이 대구에 딱 한군데뿐이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 건물주와 임대료 갈등을 빚고 있어 언제 문을 닫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에도 한 곳뿐이지만 전국적으로도 5곳 정도밖에 없다.

대구와 같은 대도시가 이런 상황이니 경북의 작은 도시나 읍면 단위로 내려가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예회관이나 도서관 등이 있지만, 한 도시에 한 곳 정도가 고작이다.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런 문화 공간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그나마 시니어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 경로당이다. 요즘은 찾아가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시골에 거주하는 시니어(고령자)들도 부족하나마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다행스럽다.

한 지자체에서 조사한 결과는 이런 실정을 잘 보여준다.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에서 문화 활동 등을 하기 위해 접근하기 쉬운 장소가 있느냐는 질문에서 응답자 전체의 40.8%는 ‘특별히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50대 중후반인 베이비 부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이다. 앞으로 48년 뒤에는 2명 중 1명가량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될 것이라 한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는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전엔 50대 후반만 되면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50대 후반이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시기일 뿐이다. 최소 20년 이상 왕성한 활동이 가능한 연령이다. 문화적 욕구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강한 것이 오늘날의 시니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예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연령별로 차별화된 문화 공간이 보다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시니어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등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변화를 꾀해야 할 때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영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준비해왔다고 한다.

#### 홍현득

매일신문 편집국 부국장  
주간 ‘시니어매일’ 총괄단장 겸 편집장



# 예술과 의학의 융합이 필요하다

*Healing through culture*

글 대구광역시 의사회장 이성구  
사진 동아에드(주)

예술과 의학은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소중한 자산이다. 언뜻 보면 별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두 분야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발전해 왔다. 의학은 예술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다. 생과 사를 넘나들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가득한 생로병사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한 소재가 되어 많은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것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친숙한 명언이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고대 그리스의 격언을 옮겨 정리한 글의 앞부분이다. 이 유명한 앞부분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글 전체 또한 깊은 의미를 지닌다.

위대한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의 덧없음과 예술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덧붙여 의사의 역할과 자신의 인생관을 이 글에 같이 담아내었다. 이처럼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 벌써 예술과 의학은 같은 선상에서 논의해야 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마도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예술과 의학의 최초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다.

*Life is short, art is long, opportunity fleeting,  
experiment treacherous, judgment difficult.*

*The physician must not only be prepared to do what is right himself,  
but also to make the patient, and externals cooperate.*

—Hippocrates—



## 문학 작품 속 의학 이야기

그 후 창작된 인류의 위대한 예술 작품 속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형태의 의학 이야기가 녹아들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의학 이야기 하나를 꼽는다면,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나오는 관우(關羽)와 화타(華佗)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관우가 양성(襄城)을 공격하다가 오른쪽 팔에 독화살을 맞게 되었다. 당대 제일의 명의 화타가 예리한 칼로 관우의 팔을 절개하고 독이 퍼져 있는 뼈를 사각사각 소리가 나도록 깎아내어 치료를 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는데 관우는 신음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바둑에만 열중할 따름이었다. 치료가 끝나고 화타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관우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관우는 이를 무시하고 바로 전쟁터로 달려갔다. 그러자 화타는 관우의 신체의 병은 고쳐줄 수 있으나 마음의 병, 즉 오만이라는 지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저자 나관중(羅貫中)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섞어 극적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냈다. 스토리의 전개상 당대 최고의 의사인 화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다소 의외다. 관우가 팔을 치료 받은 이야기는 정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위 팩트이지만 정작 치료를 한 의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록에 따르면 화타는 이미 11년 전에 조조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관우를 치료한 의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소설의 재미를 위해 저자는 이미 고인이 된 화타를 시간을 초월하여 불쑥 등장시켰다. 무신으로 추앙받는 관우와 천하제일 명의인 화타의 조합으로 책의 재미는 배가 된다. 또한 치료 내용도 자못 극적이다. 화타가 마취도 없이 생살을 가르고 뼈를 긁는 치료를 권하니 관우가 단번에 수락한다. 마취나 수술의 개념이 없던 시기에 상당히 충격적인 치료법일 텐데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관우의 의연함이 단연 돋보인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치료에도 아프다는 투정 한마디 없이 바둑을 두는 관우의 모습은, 의리 있고 용맹하다고 직설적으로 서술하는 것보다 백배는 더 멋지게 독자에게 다가온다. 화타가 관우의 오만함을 탄식하는 부분에서는 관우의 불행한 최후를 암시하는 복선도 엿보인다. 의사로서 마음까지 치료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화타를 보면 과거에도 의사는 마음까지 고쳐주는 심의를 명의로 쳤나 보다. 이쯤 되면 화타와 그의 치료법은, 적은 분량이지만 관우의 의연함을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미래의 복선을 암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봐야 하겠다.





## 예술 치료의 마법 같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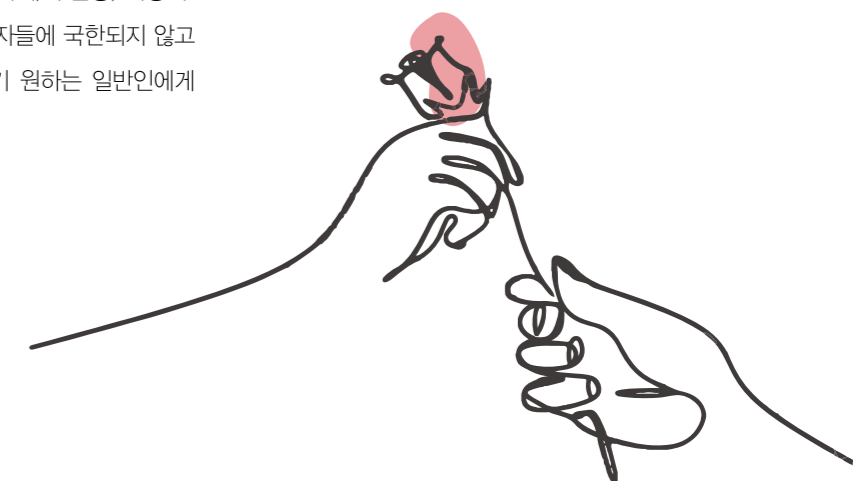
인류의 예술 작품 속에서 의학은 일일이 언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등장하지만, 그 반대로 의학의 입장에서 예술은 다소 생뚱맞은 분야였다. 의사이면서 예술가로도 뛰어났던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있어 의학사에서 예술의 존재가 겨우 언급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점차 생물학적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시도가 늘어나면서 예술은 의학 속으로 급격히 들어오고 있다.

삭막한 일상에 감동과 향기를 불러오는 예술은 현대인의 경직된 몸과 마음을 이완케 하여 무기력하거나 위축된 사람에게는 활력을, 자신감이 없거나 결정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신감 회복을, 그리고 자아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자아를 찾도록 도와주는 '마법'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언어 발달, 대인 관계의 개선, 우울이나 불안의 극복 등의 정신과적 치료뿐 아니라 근육의 발달, 병에 대한 면역력 향상 등의 신체적 치료에도 예술이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최근에는 예술을 통한 치료의 대상자도 자폐증, 노인 치매,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불안, 적응 장애 등의 환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자아의 건강과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원하는 일반인에게로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추세이다.

## 다양한 예술 치료법

예술이 의학 속에서 치료법으로 자리잡은 대표적인 예는 그림, 무용, 문학, 음악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경험과 상처, 아픔 등의 기억은 대부분 영상의 형태로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무의식에 파묻힌 상처와 아픔을 인식하게 도와주고 이를 통해 자존감의 회복과 심리적 치유로 연결하는 미술 치료는 특히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의 심리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무용은 자유롭게 또는 일정한 틀에 맞춘 댄스, 율동 등을 하면서 내면의 의식 변화와 신체의 작용을 유도한다. 특별한 질병이나 정신적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도 무용이나 운동 치료를 통해 몸의 움직임, 근육과 관절의 활동, 몸의 긴장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과거 추억을 되살려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문학 활동의 일환으로 시를 짓게 하거나 낭송하게 하면 그 과정을 통해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게 되어 감정의 순화와 정신적 이완을 일으킨다. 독서 치료는 자신에게 맞는 책을 선택하여 필요한 책을 읽게 하고, 독서를 통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 자신의 잠재된 생각을 표현하도록 이끌어 낸다. 음악의 리듬과 정서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을 움직이게 하고 명상을 할 때처럼 이완 상태로 유도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운다. 치매 노인에게 흘러간 가요를 들려주었을 때 잃어버렸던 기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 예술과 의학의 미래

이처럼 예술의 거의 전 영역이 의학에 활용되고 그 효과가 확인되면서 최근에는 예술 치료를 전공하는 학과가 많은 대학교에 설치되어 그 내용이 더욱 세분화, 전문화되는 등 예술 치료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의학과 예술은 긴 세월을 인류의 곁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어 상호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각자의 길보다 하루가 다르게 융합되어 나가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과학의 발달로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나 그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는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혔다. 과거 의학이 예술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면, 이제는 의학이 예술의 위대함에 기대어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 문화(文化)의 만개(滿開)의 시대를 맞아 예술과 의학이 접목된 새로운 치료의 영역을 창조하여 더욱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를 기원한다.

이성구  
대구광역시 의사회장



*Grow healthy through culture*



# 인류, 자아, 탄생 그리고 빛

*Light and birth, Humanity*

글 자유기고가 정정남

사진 박민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다시 태어나는 빛' 전시회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빔 프로젝터를 이용한 이번 전시회는 전시장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빛의 움직임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다. 또한 디지털 모니터에서 벗어난 매체의 확장을 통해, 빛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덧입혔다.

**Q. '다시 태어나는 빛'展은 어떤 전시회인가.**

빔 프로젝터를 동원한 미디어 월 전시입니다. 디지털 화면에서 벗어나 시원한 전시장 벽면을 캔버스 삼아 작업했지요. 크게 11분, 5분으로 나눠 영상물을 연출했습니다. 고전의 시간을 조명하여 불완전한 자아를 성찰하고자 했던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상반된 요소가 만나 밝음과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인간의 근본과 진리에 대한 고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Q. 작업의 주요 테마는 무엇인가. 테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작품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빛'과 '진리'를 큰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빛'을 표현하기 위해 모니터와 조형, 빔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왔지요. 다시 말해, 미디어 매체를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어떻게 미디어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1997년 순천대학교 애니메이션과에 미술 해부학 강의를 나간 적이 있어요. 순천대학교에 비교적 빨리, 그러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과가 생겼어요.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손으로 그릴 때는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컴퓨터로 하니깐 순식간에 그

렸다가 또 지웠다 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미술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는 미디어의 세대라 할 수 있을 만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미디어는 대중에게 밀접한 요소라고 판단했거든요.

제 전공이 조각이라서 놀라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막상 작업을 해보면 미디어 아트와 조각이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모니터가 캔버스를 대신하고, 그 모니터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Q. 작가로서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저는 백남준 선생님의 예술 세계와 정신을 존경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선구자시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분의 예술 세계를 닮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 비전 등 제게 궁극적으로 지향점을 제시해주는 분인 것 같아요.

백남준 선생님만큼이나 저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 한 명 더 계세요. 큐레이터 이원일 선생님입니다. 이원일 선생님께서 생전에 제게 '고3처럼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 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모든 작품이 소중하겠지만 특별히 정이 가는 작품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의미인가.**

2007년도에 발표한 작품인 '8폭병풍 1'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 고전과 현대의 크로스오버를 처음으로 시도했었는데, 중간중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얻어지는 부분도 많았지요. 개인적으로는 표현 장르 하나를 개척할 수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Q. 작가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있다면?**

작가는 본질과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고, 중요히 여길만한 가치들을 찾는 데도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작가 혼자만의 예술은 결국 죽은 예술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을 마감한 작가의 혼이 예술 그 자체로 남으려면 결국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사랑해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작업을 통해 현시대의 대중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메시지를 교감하는 작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디 더욱 친숙히, 정확히 느껴지는 작품을 만들어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Q. 앞으로의 작업 계획은?**

여러 기관과의 협업 및 콜라보를 통해 조각, 설치 등 무궁무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빛'을 주제로 한 빔 프로젝터 작품은 앞으로도 계속 시도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아날로그적인 오브제와 자유롭게 결합하며 틀을 벗어나는 이런 스케일의 작업도 계속할 계획이에요. 더불어 고전 명화나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디지털 미디어로 재해석하는 작품들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이남 초대전 <다시 태어나는 빛>展  
2019. 9. 26(목) ~ 10. 20(일) / 10:00 ~ 19:00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



# 너와 나의 자유로운 대화 재즈 JAZZ

*Communicate in jazz*

글 자유기고가 김상아  
사진 (주)제이피컴퍼니

음악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장르 중 단연 으뜸은 재즈가 아닐까. 그래서 재즈 공연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나 리듬을 탈 수밖에. 12월 6일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도 재즈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재즈파크 빅밴드와 함께 공연을 선보일 JK김동욱과 웅산을 만나 다가올 공연의 기대감을 높여보았다.

**Q. 다가오는 12월 6일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재즈파크 빅밴드 with JK김동욱 & 웅산' 공연을 앞두고 있다. 어떤 공연인가?**

**김 & 웅 :** 빅밴드는 재즈 음악의 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빅밴드 공연을 감상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2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 있는 재즈파크 빅밴드와 함께하는 공연이라 더 특별하다. 또한, 대구는 정기적으로 재즈페스티벌이 열릴 정도로 재즈 마니아들이 많은 곳이다. 대구와 재즈파크 빅밴드,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공연의 콜라보가 벌써 기대된다. 이번 공연을 통해 재즈 안에도 다양한 음악들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여기서 탄생했구나.' 하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연으로 꾸밀 예정이다.



**Q.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곡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었나.**

**웅 :** 재즈파크 빅밴드의 홍일점 재즈피아니스트 지나 씨의 연주를 감상하는 즐거움에 주목해주면 좋겠다. 특히 JK김동욱과 함께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재즈를 더 대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재즈 스탠더드 곡인 'Moanin'에 국악적인 요소들을 믹스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많은 분이 사랑해주는 나의 자작곡 'yesterday' 등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도 준비 중이다.

**김 :** 나 역시 더 많은 관객분과 무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명한 곡들을 빅밴드에 맞게 재구성하여 공연할 예정이다. 우선 프로젝트로 몇 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는 재즈 앨범에 수록된 곡 중 'Ain't No Sunshine'으로 공연을 시작할 예정이다. 라트비아의 가요를 심수봉 선생님이 개사하여 알려진 유명한 재즈곡 '백만 송이 장미' 역시 리베르탱고의 느낌으로 재탄생시켜 준비 중이다. 이문세 선생님의 히트곡인 '옛사랑'은 기타, 피아노와의 조화로 더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Q. 이번 공연을 서로와 함께하게 된 소감은? 오랜 인연이라 아름다운 호흡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김 :**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 보컬인 웅산 씨와 '재즈'라는 타이틀로 함께 한다는 게 영광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내가 배우게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 기대 중이다. 다양한 장르를 시도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재즈파크 빅밴드와 웅산 씨에게 고마움 따름이다.

**웅 :** 김동욱 씨와는 오래전부터 무대에 함께 서는 등 꽤 오래 연을 맺어 왔다. 허스키한 목소리로 많은 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지만, 사실 섬세한 면도 많다. 그래서 재즈곡을 부를 때 JK 김동욱의 매력에 무한히 발산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가수이기에 대중들한테 재즈를 소개하기에 더없이 좋은 무대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Q. 두 분 모두 이름만 들으면 목소리가 떠오를 정도로 확고한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다.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정의하자면.**

**웅 :** 재즈 보컬리스트라고 하면 재즈 스탠더드 곡만 고집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러기엔 나는 너무 여러 장르의 음악을 좋아한다. 블루스도 좋고 국악도 좋다. 특히 국악은 지난 몇 년 동안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베이스로 나는 끊임없이 곡을 만들고 발표한다. 내가 어떤 음악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곡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재즈에 국악을 다양하게 믹스하고 있다. 외국 공연장에서 내가 한국적인 색채로 재즈곡을 해석하고 공연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 한국에 대한 강한 임팩트도 남길 수 있고, 재즈의 더 큰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라고 생각한다. 재즈 보컬리스트지만 한계를 두고 싶지 않다. 힙합도, 판소리도, 오페라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음악적인 한계는 나에게 없을 것이다. 재즈 안에서만 자유로운 재즈가 아닌, 재즈를 통해 모든 음악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김 :** 요즘에는 테크닉적으로 잘하는 분들도 많고, 음악 장르마다 자신의 스타일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다. 음악의 다양성은 그 스펙트럼이 넓어질수록 우리에게 큰 기쁨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 안에서

나만의 시그니처 목소리 톤을 많은 분에게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로 다가가려 노력 중이다. 아직은 음악에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Q. 어느 가게에 가든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 역시 음악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간다. 그럼에도 재즈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낯선 장르이다. 재즈의 매력을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자면.**

**김 :** 재즈라는 장르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플레이되어 온 장르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재즈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부족했을 뿐이라 생각한다. 가끔은 보컬 없는 음악이 듣기 어색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즈를 즐기다 보면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악기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늘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없듯 재즈도 마찬가지로이다. 얼마나 재미있는 대화인가. 들을 때마다 달라지는 대화이기에 재즈는 무엇보다 라이브 음악에 최적화되어 있다. 때문에 재즈와 친해지기 위해서 직접 공연장을 찾길 권하고 싶다.

**웅 :** 내 마음대로 그날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날의 공간과 가장 하나 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가 재즈이기 때문이다. 재즈는 자유스럽고, 또 자연스러운 장르다. 그렇기에 처음 만나는 사람과 연주를 할 때도 가장 음악적인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재즈가 가진 엄청난 힘이라 생각한다. 이미 하나 될 준비를 마친 재즈 뮤지션들은 이러한 음악적 공감을 편안하게 풀어내는 이들이다.

**Q. '재즈파크 빅밴드 with JK김동욱 & 웅산' 이외에도 준비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김 :** 올 연말까지 개인 콘서트보다는 지금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공연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내년 봄부터는 소극장 공연을 통해 장기적으로 팬들을 만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웅 :** 11월 중순 김광석의 '그날들'이라는 곡을 싱글로 발매했다. 워낙 좋아했던 뮤지션이고 좋아했던 곡이라서 ECM 재즈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is the man'이라는 곡도 얼마 전 발매했다. 이 곡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레트로 느낌의 팝 재즈곡이다. 연이어 곡을 발표한 만큼 많은 분과 함께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재즈파크 빅밴드 with JK김동욱, 웅산  
2019. 12. 6(금) 19:30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달서기행  
달빛과 호수의 낭만,  
월광수변공원

일상@예술  
〈2019 청춘수필집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글 쓰며 만나는 진정한 나

일상@예술  
〈2019 드로잉프로젝트 '동네 여행'〉  
그림 그리며 떠나는 일상에서의 동네 여행

Live On  
대구타악 연주〈두드림달서클럽〉  
Do dream!  
타악의 매력 속으로

Highlight  
〈전시 리뷰〉  
'인형의 꿈' —공병훈, 한승훈展

Highlight  
〈공연 리뷰〉  
2019 재즈인대구 페스티벌

Highlight  
〈이슈〉  
웃음이 가득한 또 다른 내 집  
달서가족문화센터

Highlight  
〈인프라〉  
나의 꿈, 나의 행복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Life & Culture



‘향유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의 또 다른 가치일 것이다.

(재)달서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10호에서는 자기의 삶을 글로 정리하는 2019 청춘수필집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림 그리며 떠나는

동네 여행 ‘드로잉프로젝트’, 대구 타악연주팀 ‘두드림달서클럽’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일상의 행복이 전해지리라 기대한다.



달서기행

# 달빛과 호수의 낭만 월광수변공원

글 자유기고가 김상아

사진 박민규

*The romance of  
the moonlight and the lake*

## 낭만을 입은 아름다운 공원

유난히 '뭇'이 적은 대구 지역에 몇 안 되는 호수 중 하나가 달서구에 있다. 바로 도원동 지역의 도원지이다. '도원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월광수변공원은 달서구의 핵심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도원지’는 원래 ‘수밭못’으로 불리던 곳이다. 그 일대가 수밭마을이었기 때문인데 수밭마을은 도원동에서 가장 큰 자연촌락이다. 마을을 개척할 당시 박씨 성을 가진 선비가 숲이 울창해서 ‘숲밭(수밭)’이라 이름 붙였다고 전해진다. 현재의 이름인 ‘도원’의 유래도 전해지고 있다. 도원동은 골이 매우 깊고 그윽하다. 이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마치 중국의 무릉도원 같다고 하여 ‘도원골’이라 불렸다. 다른 유래도 전해진다. 냇가에 복숭아 잎과 꽃이 떨어려와 따라 올라가니 복숭아나무가 많고, 경치가 아름다워서 복숭아 도(桃)자를 따서 ‘도원동’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다.

‘도원’이란 이름과 ‘수밭’이란 이름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부터 그 유래가 전해지니 현재 월광수변공원이 달서구의 랜드마크가 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월광수변공원에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도원지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하는 음악 분수를 감상하며 걷는 산책길은 밤의 서정을 넓혀준다. 도원지를 가로지르는 수변 관람 데크를 밤에 걷는다면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물결의 일렁임을 온몸으로 느끼며 수변 관람 데크의 끝에 다다르면 독길을 따라 걸을 수도 있다. 흙길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곳이라 독길의 입구에는 사람들이 벗어둔 신발들이 눈에 띈다. 독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가로등 하나와 벤치 두 개가 그 끝을 알린다. 독길과 도원지, 가로등과 벤치의 조화는 월광수변공원의 수많은 힐링 장소 중 단연 손꼽히는 명소다. 여기서부터 삼필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월광수변공원의 풍광을 내려다볼 수 있어 등산에도 낭만을 더할 수 있다.

## 수달까지 만날 수 있는 청정 지역

주변 자연과 조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월광수변공원. 이곳은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선 공원 주변에는 복숭아나무 외 40종 21,922본의 향토 수종이 식재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멸종 위기 1급으로 분류된 천연기념물 수달 가족이 월광수변공원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대구시가 전수 조사해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한 관리 대상 수달이 아니라 더욱 고무적이다. 뿐만 아니라 도원지 주변에서는 붉은귀거북이나 잉어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기도 하다. 이처럼 도원지와 월광수변공원은 도심 속 자연 친화적 생태 공원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월광수변공원은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어른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존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음수대,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파고라 등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달서구민이 기증한 도서로 운영되는 주민자율형 무인도서관인 숲속도서관이 부스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어 자연을 벗삼아 독서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 다양한 축제의 장, 월광수변공원

이러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월광수변공원에서는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특히 전국 최초 결혼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달서구를 대표하는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야외 결혼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사랑스러운 조형물을 곳곳에 갖추고 있는 월광수변공원답게 관련 축제가 연이어 펼쳐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설렘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된 ‘두근두근 페스티벌’이 펼쳐져 젊은층의 적극적인 관심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한여름 밤이 되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버스킹 공연이 공원 곳곳에서 펼쳐진다. 2월에는 소방 안전 체험과 달집태우기 행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구 달배달맞이 축제가 펼쳐지며, 장미 축제, 과학 축제 등 1년 내내 다양한 축제를 이곳 월광수변공원의 낭만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월광수변공원은 도원지 서편까지 그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도원지 서편 일대 4만2천557㎡에 월광2수변공원을 조성 중인 것이다. 월광2수변공원은 전망대, 휴게 공간, 목재 데크 산책로 등을 갖춘 예정이다. 특히 산책로는 기존의 동편에 마련된 산책로와 이어져 도원지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전히 발전을 거듭할 예정인 주민들의 휴식처, 월광수변공원. 이곳에서 여유로운 산책에 운치를 더해보자.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5





## 달서기행, 그 밖의 곳곳들

###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대구수목원

대구수목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조성하여 주목받은 곳이다. 한때 이곳은 대구 시민의 생활 쓰레기 410만 톤이 매립되어 악취로 악명 높았다. 지역민의 불만사항은 물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 복원을 시작, 현재는 생태 복원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수목원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더 특별하다. 246,503㎡의 큰 규모인 대구수목원에서는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식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꽃과 나무들을 관찰하며 걷노라면, 자연히 걸음도 느려진다. 좀더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길수록 산에 가까워져 녹음은 한결 짙어진다. 중간중간 산책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큰 돌이나 벤치도 마련되어 있다. 대구수목원을 더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테마별로 마련된 다양한 원(園)을 살펴보면 된다. 이곳에는 침엽수원, 활엽수원, 무궁화원, 약용 식물원 등 다양한 테마원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선인장 온실은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다. 200여 종의 선인장과 다육 식물이 어우러진 선인장 온실에서 이국적인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42

### 2만년 역사가 잠든 곳, 선사시대로

달서구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대거 출토된 곳이다. 특히 선사 시대 유물은 우리나라에서 밀집도가 가장 높다. 이러한 문화 유적을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총 세 코스의 선사시대 탐방로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선사유적공원과 고인돌소공원을 둘러보는 고인돌 코스는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선돌 코스를 선택하면 한샘공원과 선돌공원을 둘러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유롭게 코스를 정하여 탐방할 수 있는 자유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취향에 맞게 2만 년 전 이곳의 역사와 마주할 수 있다.

선사 시대로를 탐방할 때는 곳곳의 조형물을 찾아보는 것도 묘미이다. 진천동 도로변에서는 길이 20m, 높이 6m 규모의 원시인 석상을 만날 수 있다. '2만 년 역사가 잠든 곳'이란 이름의 이 석상은 주변의 이색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도로에서는 아이디어 넘치는 도로 표지판을 만날 수 있다. 원시인이 돌도끼로 안내판을 내려찍는 조형물로, 선사 시대 유적이 가득한 곳이라는 안내를 재치 있게 표현해 탐방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위치:** 선사유적공원(달서구 진천동 470-38) / 고인돌소공원(달서구 진천동 713-14)  
한샘공원(달서구 대천동 353-5) / 선돌공원(달서구 월암동 431)



사진①



사진②



사진③



사진④

사진① 대구수목원 | 사진② 고인돌소공원  
사진③ 선사시대로 석상, 2만 년 역사가 잠든 곳  
사진④ 달서별빛캠핑장

### 별빛과 도시 야경의 이색 조화, 달서별빛캠핑장

캠핑의 낭만을 도심 속에서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제격인 달서별빛캠핑장은 동네 여행에 특별함을 더하기에 좋다. 달서별빛캠핑장은 앞산에 자리해 있어 자동차로 주거 생활 지역에서 10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다. 시간을 내어 멀리 떠나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도심 속에 자리해 갖는 장점은 편리함만이 아니다. 캠핑장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은 캠핑에 낭만을 더한다. 여름에는 확 트인 야경을 바라보며 맥주 한 잔을, 겨울에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즐기며 감성을 더하기에 더없이 좋다.

달서별빛캠핑장은 오토 캠핑장과 데크 캠핑장 각각 15사이트와 카라반 8대, 숲속 캠핑장 11사이트의 숙영 시설을 갖추고 있어 취향에 맞는 캠핑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캠핑장 내 다목적 운동장으로 사용 중인 10,000㎡ 부지에 목재문화체험장도 건립될 예정이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는 이곳은 목재 체험실, 나무 상상 놀이터, 숲속 놀이터 등 자연을 더욱 가깝게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계획이다.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248



# 글 쓰며 만나는 진정한 나

2019 청춘수필집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글 자유기고가 김상아  
사진 박민규

*Bravo, my life!*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연습장과 필기도구를 소중히 챙겨 웃는얼굴아트센터 강의실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였다. 2019 청춘수필집 '브라보 마이 라이프' 수업을 듣기 위해서이다. 반가운 인사도 잠시, 자신의 삶을 글 속에 담기 위해 수강생들은 길고 긴 사색의 시간에 빠져들었다.



##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자, 이미 공지되었던 대로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글쓰기가 시작됐다. 수강생들은 마치 10년 후로 잠시 여행을 떠난 듯 모두가 집중해서 미래를 상상했다. 글을 쓰는 동안 류순희 강사는 수강생들이 써 내려가는 글이 더욱 매끄러울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진행했다. 오롯이 집중으로 가득 찼던 강의실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각자 쓴 글을 발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은미 수강생은 "10년 후 내 모습이 쉬 그려지지 않는다"며 할머니가 되어 있는 모습, 과수원을 꾸러가기 시작한 남편을 돕는 모습, 친구들과 여전히 테니스를 즐기는 모습 등을 상상했다. "10년 후 내 모습을 만드는 것은 지금의 내 시간"이라며 발표를 마무리한 김은미 수강생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뒤이어 허은연 수강생의 수필을 들은 다른 수강생들은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태석 수강생은 발표에 앞서 "기록의 의미로서의 일은 정리가 잘 되는데, 감정이 들어간 글은 쉽지 않다"며 수필 쓰기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함께 수필을 쓰기 위해 모인 이들은 이태석 수강생의

말에 공감하는 듯 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또 "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10년 후가 지금 이대로만 있어 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은 수필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체적인 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늙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이의 다짐이 잘 담긴 글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지난 주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들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나에게 고맙다'라는 주제를 통해 발표를 이어가던 수강생들은 지난날을 돌이켜 회상하는 부분에서 울컥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요한 침묵으로 서로를 위로하던 이들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발표도 이어졌다. 김종태 수강생은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의 아내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수필을 발표, 아내와의 재밌는 에피소드로 다른 수강생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분주하게 일과를 보내는 자신을 돌아보며 잘살고 있음을 느낀 김경애 수강생의 발표도 이어졌다. 그녀는 몸이 아프거나 좋지 않은 일을 겪은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 다양한 방식의 수업으로 깊어진 수필 감수성

2019 청춘수필집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9월 초부터 수업이 진행되어 13번의 만남을 가졌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의 초반에는 항상 워밍업 글쓰기를 위해 ‘10분 글쓰기’가 진행된다. ‘마구쓰기’라는 부제가 붙은 글쓰기인 만큼 가을 하늘, 최근 행복했던 일 등 작은 주제를 통해 가벼운 글쓰기가 이어진다. 10분 글쓰기와 발표 후에는 류순희 강사의 글쓰기 이론 수업이 진행된다. 매일신문 기자 출신의 류순희 강사는 글쓰기의 개요, 단락 구성법 등의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이 더욱 전문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론 강의 후에는 본격적인 ‘주제 글쓰기’ 시간이 이어진다. 글쓰기 주제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류순희 강사는 사진, 시, 노래 등을 적절하게 활용했다. ‘병 속에 담고 싶은 시간(Time in a bottle)’이란 팝송을 함께 듣고 병 속에 담아 두고 싶은 만큼 내 생에서 잊고 싶지 않은 기억에 대한 수필을 쓰기도 하고,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시를 함께 감상한 후 나의 가족에 대한 글쓰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나 음악으로 감성을 자극받은 수강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잘 풀어낼 수 있었다. 가을을 만끽하고 다음 글의 영감을 받기 위해 소풍을 다녀오기도 한 이들. 계명대학교 한학촌에서 가을의 청명함과 한옥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 온 이들은 한층 더 깊이진 감성을 풀어낼 수 있었다.

### 수업의 끝자락에 선물 받는 우리들의 책

이렇게 정성으로 쓴 글들은 서로 발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진다. 13회차 수업 중 마지막 두 회차 수업은 교열 수업으로 진행됐다. ‘2019 청춘수필집’에 실릴 자신의 글을 다시 다듬고 고치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은 것이다. 수강생들은 자신이 쓴 수필에 맞는 사진을 고르고, 류순희 강사를 비롯한 여러 수강생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수필집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이번 수업 수강생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2019 청춘수필집’은 곧 웃는얼굴아트센터 내 도서관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수업에 참여한 신호정 수강생(달서구 대곡동)은 “글쓰기 하면 막연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수필 수업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체계성을 배워 막막함을 지울 수 있었다”며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앞으로도 더 많은 글을 쓰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내 인생을 담아낼 책 한 권이 있다면, 그 책의 표지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대표하는 제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제목은 단숨에 지어지지 않는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담아내는 것. 힘들겠지만 인생에 있어 가장 뜻깊은 순간으로 맞아야 할 시간일 테다.

###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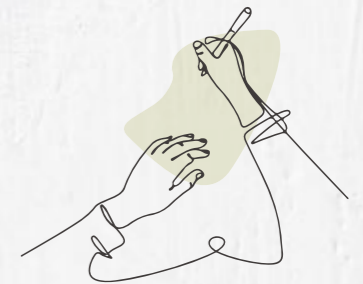
“앞으로도 글 쓰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류순희 강사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2019 청춘수필 집 ‘브라보 마이 라이프’ 강의를 진행한 류순희입니다. 13번 정도의 수업이 최근 마무리되었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수필로 풀어내 주셔서 진정성 있는 우리만의 수필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필 글쓰기 수업은 4기째 운영 중입니다. 1기와 2기에는 자서전 쓰기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수강생들의 진솔한 글은 좋았지만, 틀에 박힌 듯한 이야기들이라 글감이 다양하게 나올 수 없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수필 쓰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같지만, 훨씬 다양한 주제를 담을 수 있어 더욱 완성도 높은 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강생들은 대부분 글 쓰는 것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열심히 쓰셨고, 즐겁게 수업에 임했습니다. 비록 수업은 끝났지만,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한 글이 생활 속에서 더 다양한 글감으로 폭넓게 이어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 그림 그리며 떠나는 일상에서의 동네 여행

2019 드로잉프로젝트  
‘동네 여행’

글 자유기고가 김상아  
사진 박민규

그림을 그리는 일은 여행과 같다. 잠시 일상을 벗어나 캔버스 안으로 고스란히 몰입되기 때문이다. ‘2019 드로잉프로젝트 <동네 여행>’에서 만난 수강생들은 각자 자신만의 세계를 캔버스 안에 만들어 나가며 몰입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 그림에 온전히 몰두한 시간

지난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로잉프로젝트 <동네 여행>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21명의 수강생들이 삼삼오오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모였다. 특히 그림을 그리는 여유로운 시간을 위해 수업 전부터 별관 제5강의실에는 은은한 음악이 편안하게 울려 퍼지며 가을의 오전 시간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오늘 수업에 필요한 미술 도구들을 나눠주고 받으며 일주일 동안 못 나눴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밑그림을 그린 캔버스에 본격적으로 색을 칠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중요한 단계인 만큼 현영진 강사의 시범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에 활용하는 물감이 아크릴인 만큼 생소할 수 있는 수강생들에게 일일이 아크릴 물감의 특성과 사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아크릴 물감으로 그라데이션하는 방법 등을 배우며 의욕적인 학습 의지를 보였다. 현영진 강사는 아크릴 물감의 특성상 마르면 다시 색칠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수강생들에게 과감하고 용기 있게 채색을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도 잊지 않았다.

시범이 끝난 뒤 수강생들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림에 채색을 시작했다. 현영진 강사와 현지혜 보조 강사는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일대일로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기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며 피드백을 이어 나갔다. 밑그림에는 어떤 색깔이 어울릴지, 지금 사용한 색상에서는 어떤 색을 사용하면 더 그림이 좋아질지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수강생들은 더 멋진 그림을 완성해나갈 수 있었다.

## 첫 도전이 전시되기까지

‘2019 드로잉프로젝트 <동네 여행>’은 지난 7월에 수업을 시작, 10월 말까지 총 16회 수업을 마무리했다. 처음 몇 주간 그림에 대한 기초 강의가 마무리된 후에는 수강생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됐다. 특히, 펜드로잉, 색연필화, 수채화, 아크릴물감 등 다양한 재료들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이 이어졌다. 또한, 동네 그리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여행지, 정물 등 다양한 주제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작품들이 독려됐다. 계절도 만끽하고 동네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야외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동네 여행’이라는 테마에 맞게 웃는얼굴아트센터 인근과 회의 끝에 선정된 장소인 청라언덕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통해 배움에 낭만을 더할 수 있었다.





16주의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20여 명의 수강생들의 마지막 3주는 아크릴화 그리기로 마무리됐다. 수강생들은 그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힌 감각들로 저마다의 개성을 캔버스에 담아냈다. 해바라기가 가득한 그림, 감각적인 일출 장면이 포착된 그림, 유명 화가의 화풍을 빌려와서 그린 인물화, 한 사람의 추억이 담겨 있을 법한 골목 어귀,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바다 등 수강생들이 그리는 그림은 다채로웠다. 섬세하게 자신의 감각을 캔버스에 표현한 수강생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오롯이 두 시간을 그림을 그리는 데만 몰두했다.

이렇게 정성 들인 그림을 감상하지 않을 수 없을 터. '2019 드로잉 프로젝트 <동네 여행>'의 마무리는 전시회였다. 수업의 종강에 맞춰 전시를 준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전시가 펼쳐진 것이다. 비록 짧은 전시 기간이었지만 '2019 드로잉프로젝트 <동네 여행>' 수강생들의 그림은 지인은 물론, 웃는얼굴아트센터에 방문한 이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림을 그리며 떠나는 우리 동네 여행. 일상을 새롭게 맞는 방법으로 떠난 동네 여행에서 많은 이들이 찾은 건,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바로 나, 자신이었을 것이다.



## Mini Interview\_1

“우리의 그림엔 개성이 담겨 있습니다”

-현영진 강사



안녕하세요, 지난 16주 동안 '2019 드로잉프로젝트 <동네 여행>' 수업을 맡은 현영진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수강생들과 함께 그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2배나 많은 인원이 수강신청을 해주어 첫 시작부터 너무 기대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수업하는 인원이 늘다 보니 서로의 그림도 더 많이 감상하는 등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서 좋았습니다. 이번 수업에는 대부분 그림을 처음 그려보는 수강생들이 많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알려드렸지만, 그

림에 대한 열정이나 그림을 대하는 순수한 태도 등은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 당시 제가 수강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이 없다는 얘기였죠. 처음이기에 다소 어색한 그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의 멋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강생 대부분 각자의 개성을 너무 잘 담아내 주었는데, 그림에 담긴 정성과 마음을 알기에 제게는 더 가치 높은 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만남을 통해 더 많은 교감이 이루어질 길 바라봅니다!

## Mini Interview\_2

“추억을 통해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김민자 수강생 (달서구 진천동)



평소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웃는얼굴아트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수업을 알게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완료되고 엄청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배워보니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지난 번 함양 해바라기축제에 참여했을 때 보았던 멋진 풍경입니다. 저에겐 너무 행복했던 추억이었고, 그 장면이 아름답게 남아 있어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는데,

이번에 전시를 할 때에도 그림 제목을 '평화'로 할 생각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꽃꽂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림 전시가 끝난 뒤에는 학원 입구에 그림을 걸어둘 공간까지 마련해두었습니다! 학원의 분위기와 그림의 분위기가 사뭇 잘 어울릴 것 같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용기 있게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술아카데미 수업을 통해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Live on  
대구 타악 연주 <두드림달서클럽>

# No Dream! 타악의 매력 속으로

글 자유기고가 정정남  
사진 박민규



파란 하늘 사이로 따뜻한 가을 햇살이 떨어진다. 눈부신 햇살의 색이 바래고, 노을이 질 무렵 흥겨운 타악기 소리가 무대 위로 울려 퍼진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공연의 주인공은 바로 '두드림달서클럽'. 그동안 갈고닦은 연주 실력으로 희망달서 생활예술 페스티벌의 첫 무대를 장식했다.



## 한마음으로 타악 앙상블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다섯 시 무대 앞이 관객들로 가득 찼다. 오늘 '희망달서 생활예술 페스티벌'에서 첫 공연을 선보일 단체는 두드림달서클럽이다. 30여 명의 대구 시민들로 이뤄진 두드림달서클럽은 달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주민 참여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두드림달서클럽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다양한 타악기를 익히고, 악보 읽는 법을 배우며 실력을 다져왔다. 또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 타악 앙상블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불협화음 없이 조화를 이루었다. "타악 앙상블은 멜로디가 아니라 박자와 리듬이 핵심입니다.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매우 열정적이어서 리듬 타는 법, 악기 다루는 법 등을 빨리 배우셨어요. 오늘 공연도 약 6주 동안 연습해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든 곡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두드림달서클럽만의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받고 있는 이재경 교수(대신대학교 교회사용 음악학부 학부장)가 멤버들과 파이팅을 외쳤고, 두드림달서클럽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무대에 올랐다.





쉐케레 연주장면



카혼 연주장면

### 다함께 박수치는 흥겨운 무대

연주자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관객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초등학교부터 중년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멤버들이 눈에 띄었다.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되고, 주변을 울리는 '쿵쿵' 소리가 점점 퍼져나갔다. 때로는 낮게 때로는 힘차게, 흥겨운 리듬에 관객들은 어깨를 들썩였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손을 높이 들고 소리쳐봅시다.”** 연주자가 호응을 유도하자, 관객들은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다함께 합성을 질렀다. 무대 앞이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관객도 있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타악'이 주는 자유로움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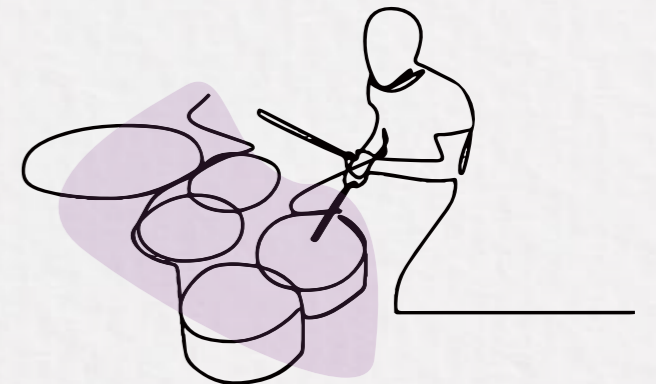
젬베, 카혼, 쉐케레 등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타악기의 음색을 들을 수 있어서 더 흥미롭고 새롭게 느껴진 공연이기도 했다. 서아프리카에서 축하연이나 제식 등의 행사가 있을 때 흥을 돋우는 악기로 사용되는 젬베의 신나고 강한 음색은 가슴을 뻥 뚫리게 할 만큼 시원했다. '탄탄' 거리는 소리를 내는 카혼은 정육면체의 상자 모양을 한 색다른 드럼 같았다. 가장 생소한 악기는 쉐케레였다. 연주자가 양손으로 악기를 잡고 좌우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흔들거나, 한 손으로 악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악기를 두드려 소리를 내는데, 다른 타악기들과 어울려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두드림달서클럽의 공연이 끝나자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타악의 매력과 두드림달서클럽의 실력을 충분히 보여준 무대였다. 공연을 마무리한 두드림달서클럽의 멤버들은 어느 때보다 상기된 표정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관객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타악기 연주를 하면서 활력을 찾고, 좋은 사람들과도 만나게 됐어요. 타악기의 진짜 매력은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드림달서클럽의 활기차고 특색 있는 공연은 관객들에게 긴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

### 자유로움을 그대로 담은 타악 공연

타악 공연을 펼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북·드럼·심벌즈 정도를 떠올렸다. 머리에 그려지는 연주 모습은 '두드리거나', '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을 보고 나서 타악의 세계는 아주 넓고 깊다 라는 걸 깨달았다. 타악기는 '때리고', '굵고', '흔들고', '문지르는' 모든 소리를 아우른다. 또한 자유로우며 실험과 모험을 가능하게 한다. 무엇보다 음악을 하는 이와 듣는 이와 소통을 우선한다. 이 같은 사실을 새로이 알게 해준 두드림달서클럽의 무대에 찬사를 보낸다. 타악 공연을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타악 공연이 아직 낯설다면 타악 연주곡으로 그 매력을 알아가는 것도 좋겠다. 스티브 라이히의 '드러밍'은 꼭 들어봐야 할 연주곡으로 손꼽힌다. 타악기의 힘과 다양성을 보여주면서도 간결하고 신선하다. 제임스 맥밀란의 '타악기 협주곡 2번' 또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곡이다. 이 곡을 들으면 악기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 ‘인형의 꿈’ 가정의 달 특별 기획전 I -공병훈, 한승훈展



글 정지연(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기획팀)  
사진 서영석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는 대구에서 신진 작가로 시작하여 10년 이상 작업에 매진한 공병훈, 한승훈 작가를 첫 번째 특별 기획전 ‘인형의 꿈’으로 초대하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두 작가를 처음 본 건 10년 전 어느 날이었다. 세월이 지나 열정적이고 풋풋했던 20대의 감성 어린 청년 작가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궁금하면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작가의 소명은 젊은 화가들에게도 비켜나갈 수 없는 숙명이자 자신의 한계와 도전을 처음으로 겪는 처절하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더욱 공허하고 방황할 수 밖에 없는 4월의 어느 날 부푼 기대를 안고 두 작가를 만났다. 그들은 삼십대 중반의 여느 청년들처럼 작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현실적인 작가로서의 삶을 고민하는 한층 더 성숙하고 진지한 예술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다른 듯하면서도 닮은 공

병훈, 한승훈 작가는 한 살 밖에 차이 나지 않는 같은 대학 선배 사이이다. 그렇기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세대 공감(世代 共感)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적 고민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들을 모티브로 삼은 두 작가는 상징된 캐릭터를 통해 현대인의 삶을 표현하는 등 공통된 주제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개성이 담긴 고유한 작업을 해왔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병훈, 한승훈 작가가 차세대 작가를 위한 특별 기획 전시 의도에 적합한 인물들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게다가 이미 지역에서 신진 작가로 시작하여 10년 이상 고군분투하며 중견 작가로의 인생을 시작하는 차세대 작가들이 아닌가.

## 공병훈 작가의 ‘저버린 개성’

공병훈 작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그는 ‘저버린 개성’이라는 타이틀로 피규어와 고전 명화를 패러디하는 형식의 첫 작품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피규어(figure)’는 가면을 쓴 허상뿐인 현대인들의 삶이 감추어져 있는 매개체로 의미화하였다. 표현 기법에 있어서도 한층 더 깊어진 작가 내면의 생각과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다. ‘저버린 개성’은 아날로그적 고전 화풍으로 차용된 피규어의 스토리에 작가만의 디지털(digital)적인 감성을 매끈한 표현으로 담아 이중적 코드로 나타내었다.

공병훈 작가는 얼마 전부터 작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누구를 위한...’ 시리즈에서는 ‘저버린 개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소재의 과감한 시도가 있었다. 유리라는 오브제를 선택하여 물성(物性)의 특징인 모든 상황과 주위 환경을 투명하게 비추고 흡수하는 매체로서의 성격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스스로 조건에 한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함을 투영하였다. 결과적으로 작가 자신도 대중화되어 가는 획일성을 비판하며,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한계와 물개성에 대한 과감한 질타와 다양성,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하지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The portraits of youth*

## 한승훈 작가의 인물 이야기

역시 대중과의 소통 지점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한승훈 작가는 화려하고 도도한 여성 인물들을 묘사한 형상(形相)으로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캐릭터를 창작하였다. 그러나 한승훈 작가의 인물들은 눈을 응시할수록 무표정함, 슬픔, 애잔함, 연민, 우울감 등 복합적인 감정들이 묻어난다. 또한 인물들의 정리되고 단정한 표정 뒤에는 공허함과 허무함, 우울과 적막까지도 느껴진다. 한승훈 작가는 매끈하고 화려한 캐릭터의 겉모습에 성과 위주의 삶을 인생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우울하고 불안하며 공허한 삶의 이면을, 마치 속은 텅 빈 것 같은 플라스틱 인형으로 대체하여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연작 시리즈는 캐릭터 형상과 작업의 배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그의 수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아직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을 걸어온 두 작가의 런 웨이(run way)였지만 그들의 10년간 작업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재정리하고, 작가들의 대표작들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는 차세대 작가들을 적극 지원하고 조명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병훈, 한승훈 작가가 화려한 청년기를 보내고 그들의 꿈이 곧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뜨거운 여름을 재즈의 선율로 들썩이게 만든 2019 재즈인대구 페스티벌

글·사진 허정무(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기획팀)



세계 각국의 재즈 뮤지션들과 지역의 신예 아티스트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인 <재즈인대구 페스티벌>은 자유로운 열정의 음악인 재즈의 경쾌한 선율을 타고 출발 4년 만에 한여름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

2019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열린 <2019 재즈인대구 페스티벌>은 신예 뮤지션 '포나우 켈렛'의 야외무대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같은 시간 청룡홀에서는 '위이책 저스티나 트리오'의 메인 무대가 진행되었다. 강렬하고 화려한 핑크 재즈로 세계 무대를 주름잡은 이들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다. '위이책 저스티나 트리오'는 이번 무대에서 월드 뮤직의 다양한 색채와 리듬을 바탕으로 풍부하고 화려한 라이브를 들려주면서 그들의 명성을 재확인시켰다. 한편 뉴욕에서 온 재즈의 거장 '데이비드 버크만'과 '진 잭슨'을 가까이서 만나 함께 소통하며 연주하는 <오픈 워크숍> 역시 참가자들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본격적인 축제가 열린 주말에는 하루 5팀의 무대가 펼쳐졌다. 우선 라이징 재즈 스타로 선정된 '롱 아일랜드 재즈밴드', '안단테 브릿지', '스근하이', '빅 타이거 그룹' 등 4팀의 밴드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음악을 선보이며 한걸음 더 꿈에 다가서는 기회를 가졌다.

토요일의 메인 무대를 처음 장식한 것은 '옴 반 라인 켈렛'의 공연이었다. 한국에서 1집과 2집 앨범을 발매한 '옴 반 라인 켈렛'은 유려한 울림 속에서 재즈 트럼펫의 정수를 선보여 연주에 대한 호평과 함께 관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이어서 뉴욕의 대표적인 재즈피아니스트 '데



이비드 버크만'과 현 세대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드러머 '진 잭슨'의 무대, 그리고 화려한 일렉트릭 베이스 테크닉을 선보이며 데뷔한 '리오 밴드'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마지막 무대는 재즈, 펑크, 소울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리오 밴드'의 핑키하고 그루브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은 '더 뉴트리오&그레이스 김'의 무대로 시작되었다. 포스트 밥 스타일을 매끄럽게 연주해내는 비브라폰의 리드가 돋보인 이 공연은 더 뉴트리오의 오리지널 곡은 물론, 스윙, 라틴, 비밥 등 다양한 장르를 미니멀한 편곡으로 세련되게 바꾸어낸 더 뉴트리오만의 새로운 곡과 보컬 그레이스 김의 조합으로 재즈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덕 인 앵슬루트'의 공연은 특유의 큰 스케일과 웅장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트리오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풍성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선보여 관객의 큰 사랑을 받았다. 축제의 마지막은 오키나와 살사밴드인 '카침바 4'의 무대로 꾸며졌다. 오키나와 특유의 리듬과 쿠바 살사를 한 음악에 녹여낸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은 관객들을 만족시키기엔 충분했고, 관객들과 함께 즐기며 화려하게 축제를 마무리하였다.



올해는 '보다 친근하게 재즈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라는 콘셉트로 야외무대의 규모를 키우고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라이징 재즈 스타 5팀의 무대를 비롯해서 미국, 폴란드, 룩셈부르크, 한국 등 각국을 대표하는 7팀 30명의 연주자들이 화려한 무대를 펼쳤다. 이 밖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연주하며 지도받을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2019 재즈인대구 페스티벌>을 찾은 관객들에게 재즈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공연은 화려한 라인업과 프로그램으로 재즈의 바람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폭염을 식히려는 재즈 팬들의 발걸음을 대구로 불러들이기에 충분했다.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며 재즈로 청량함을 즐기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한 <재즈인대구 페스티벌>, 2020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의 축제를 기대한다.



# 웃음이 가득한 또 다른 내 집 달서가족문화센터 '문화놀이터'에서 가가호호(家家好好) 하세요

글·사진

박영빈(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지원팀장)

“OO야, 밥 먹을 시간이다~ 어서 집으로 와야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

그네 타다가, 미끄럼틀 오르내리며 술래잡기하다가  
저녁 늦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구와 놀이터에서 뛰놀던 그때 그 시절.

어릴 적 마음껏 누비던 그 놀이터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등  
모든 가족이 웃으면서 함께할 수 있는  
문화놀이터 '가가호호(家家好好)'로 초대합니다.

문화놀이터 '가가호호'는 달서가족문화센터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다. 지난 해 가을부터 가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가운데 특히 올해는 상반기 가족 아카데미에 이어 9월부터 문화놀이터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놀이터는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시기별로 대상을 나누어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60대 이상이 참여 가능한 '시니어 3미를 찾아서'와 청춘 미혼 남녀를 위한 '스터디는 사랑을 싣고', 커플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애 만들기',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 합창 교실'과 '수요 가족 쇼쇼쇼', 그리고 '토요 가족 만세'까지 특강뿐만 아니라 공연, 1일 체험 수업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하였다.

## 시니어 3미(의미·취미·재미)를 찾아서

60대 이상이 참여 가능한 이 프로그램은 은퇴 후 부담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생활의 활력을 찾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한 단기 과정이다. 4주 단기 특강 과정인 의미반은 '백세 건강'과 '노후 연금', '생활 법률', '가요 노래'를 주제로 10월 한 달 동안 매주 한 차례씩 진행되었다. 특히 1주차 과정에는 대구 출신 정신과 의사로 잘 알려진 이시형 박사가 출연하여 관심을 모았다. 그는 80세가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게 사는 비결에 대하여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6주 동안 '우리 가락 민요'와 '간편 휴대폰 사용', '기억력 up 그림놀이', '한 끼 똑딱 요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 스터디는 사랑을 싣고

이 프로그램은 미혼의 청춘 남녀를 위한 어학 동아리이다. 가족을 이루는 선행 조건이 결혼인 만큼 이를 위한 연애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된다. 이에 따라 공통의 관심사를 배우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감성 매칭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10월부터 시작한 영어 동아리의 경우 12주 과정으로, 첫날은 자기 소개와 이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나마 영어로 표현하였다. 모르는 표현은 전문 강사가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물론 부담 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이후의 과정 역시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통한 프리 토킹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간호사, 소방관, 회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이 참여함으로써 서로에게 생소했던 분야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수요가족 쇼쇼쇼\_버블쇼



스터디는 사랑을 싣고



토요가족만세\_도시락 만들기

## 수요 가족 쇼쇼쇼와 가족합창교실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열린 '수요 가족 쇼쇼쇼'는 가족 참여 공연이다. 월별로 버블 쇼와 마임 쇼, 매직 쇼가 각각 열렸다. 특히 공연 전 입장 대기 시간 동안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고 이를 포토존의 배경으로 활용하는 이벤트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가족합창교실은 10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가족이 함께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할머니와 엄마, 손자, 손녀 3대가 함께 참여한 가족이 있어 의미를 더하였다. 이 밖에도 1일 체험 프로그램으로 10월에는 가족 대상의 '도시락 만들기'와 '가족 캐릭터 아이클레이'가, 11월에는 커플 및 부부를 대상으로 한 '팝아트 그림 그리기'와 '마카롱 빼빼로 만들기'가 각각 진행되었다.

한편 문화놀이터뿐만 아니라 문화 강좌 정규 과정으로도 '가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12월 18일과 20일에는 겨울 학기 특별 기획으로 공연과 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18일 저녁 7시 30분에는 샌드 아트 공연이 개최된다. 전래동화를 샌드 아트로 풀어냄으로써 많은 아이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교육평론가 이범이 출연하여 '변하는 미래, 변해야 하는 교육'을 주제로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이에 맞는 교육법을 제시한다. 달서가족문화센터는 '가족'과 함께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것이다.



Highlight \_인프라

# 나의 꿈, 나의 행복

##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꽃 피우다

*Find my dream, my happiness*

글 · 사진 김민경(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팀장)

###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이음을 위해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 상담 및 취업 연계, 구인·구직 관리, 직업 교육 훈련, 인턴제,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여성들이 함께 도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 집단상담 및 직업교육 훈련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나를 찾는 시간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 일(Job)을 만나다'라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취업 준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인 재취업의 시작을 함께하고 있다.

시작의 첫걸음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을 품은 여성들을 위해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인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 및 급식실무양성 과정'과 '회계·세무정보처리 과정'을 개설하여 준비된 전문 여성 인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나를 보여주기 위한 기회를 잡다

지역 내 중장년 취업 희망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활력 있는 노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시니어 요양보호사취득 과정'과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 '동화미술교구놀이지도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여성들의 막연한 관심과 상상이 구체적인 인생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창업 동아리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할머니에서 요양보호사로, 사장님으로, 엄마에서 동화미술 강사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

※ 시니어 요양보호사취득 과정

※ 동화미술교구놀이지도사 과정

### 여성이 행복한 일자리 찾기

앞으로도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찾아가는 취업 상담과 굿잡(Good Job) 버스 운영, 대구여성행복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들이 취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취업 연계·사후 관리 서비스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 구민뿐만 아니라 여성이면 누구나 취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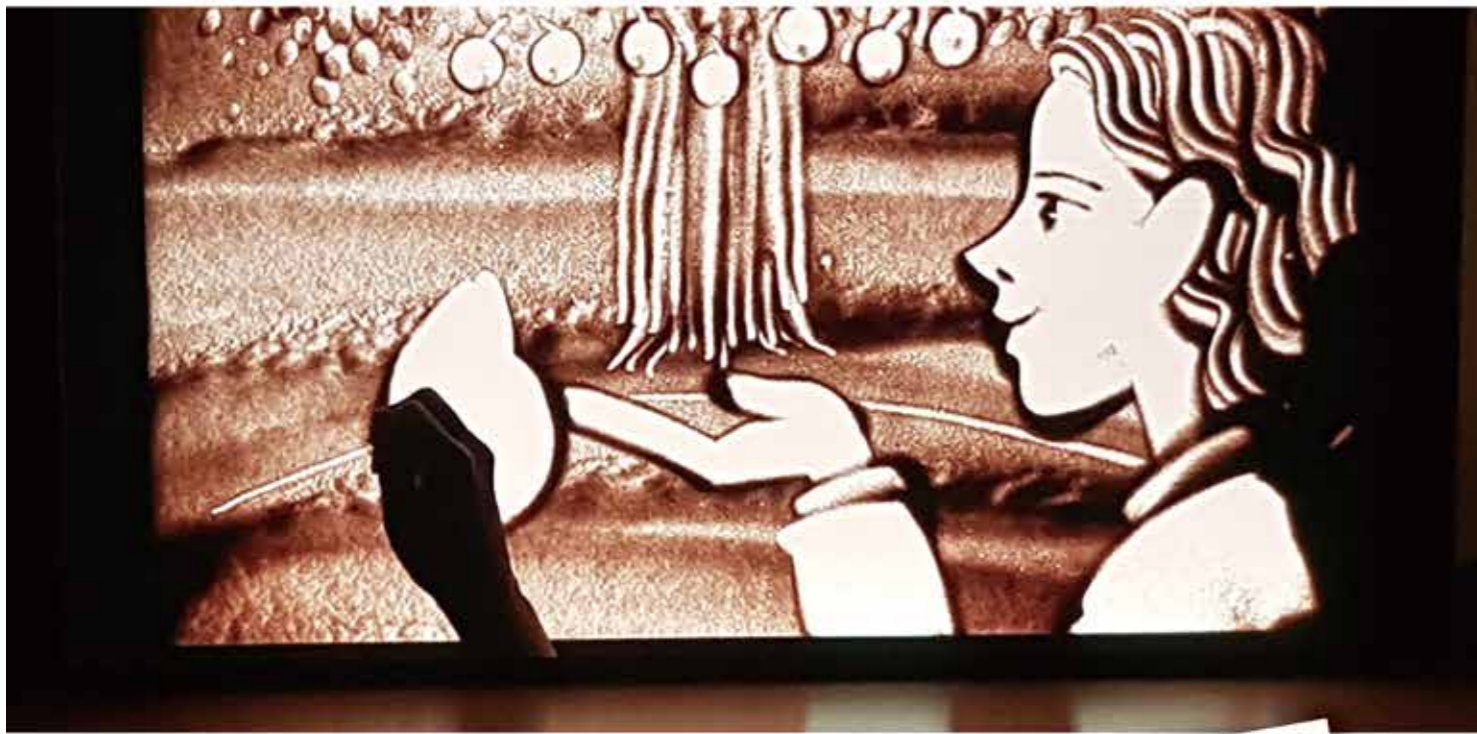
※ 2019 대구 여성행복 일자리 박람회\_찾아가는 취업 상담



가족 콘서트

# 꿈꾸는 샌드 아트

모래를 이용한 그림으로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 전개되는 퍼포먼스 공연!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2019. 12. 18(수) 19:30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참가비 5,000원

정 원 135명(공연 30분전 입장-자유석)

신 청 053.632.3800~1



어린이 MUSICAL  
**알프스 소녀 하이디**  
2019.12.25<sup>WED</sup> 11:00 / 14:00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주최 |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 출연 | 극단 예전 | 티켓 | 1만원 |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 문의 | 053-584-8719, 8968



